

옛 탐라대 부지 활용 5년째 '허송세월'

제주도, 2016년 415억 들여 부지 매입 이후 방치 외국대학 유치 성과 없어... 관리비만 매년 1억

제주특별자치도가 수백억원을 투입해 옛 탐라대학교 부지를 매입했으나 5년 동안 활용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16년 6월 415억원을 투자해 서귀포시 하원동 소재 옛 탐라대학교 부지를 매입했다.

옛 탐라대 부지와 건물을 매입한 것은 하원마을 주민들이 교육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대학 측에 잔 값을 제공했지만 상명대 연수원처럼

중국 자본이 매입할 우려가 있다는 주민들의 판단에 따라 원희룡 도지사가 공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지 매입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후 제주도는 외국대학 유치를 추진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필리핀에 있는 워싱턴 국제학교 유치 등을 진행했으나 실패했다.

2019년에는 옛 탐라대 부지 외국 대학 유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계 100위권 내에 있는 미국의 2

개 대학과 분교 또는 단과대학 유치를 협의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난 2016년 2월엔 이곳에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수산대학(WFU·World fisheries university) 설립을 추진했으나 부산시와 부경대학교에 빼앗겼다.

제주도는 당시 세계수산대학 유치 조건인 지방자치단체 지원계획과 관련, 재정지원으로 대학운영비 연 35억원(연간 운영비 70억원 중 50%)을 지방비로 1차 지원하고 대학발전기금을 연 10억원 이상(10년간 100억원, 유관기관 출자 또는 유관기관 후원금 모집 방식) 지원을 제시했으

나 부산의 저력을 이기지 못했다.

이에 제주연구원이 지난해 옛 탐라대 부지 활용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교육연수복합단지, 문화체육복합단지, 지식산업센터, 수목원 등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으나 장기과제로 분류돼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이처럼 수년째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면서 제주도는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등으로 매년 1억여원을 낭비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여러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우도·비양도 수압 저하·혼탁한 물 걱정 끝

30년 이상 노후 상수도관 교체

시는 이에따라 지난달 공사에 착수할 물 사용량이 증가하는 하절기인 오는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수압과 수질 개선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해에도 사업비 3억8700만원을 투입해 추자면·우도면·비양도 지역에 노후 상수도관(약 1.8km)을 정비했다.

시 관계자는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유수를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후 상수도관 정비 등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윤형기자 yhle@ihalla.com

기해왔다.

시는 이에따라 지난달 공사에 착수할 물 사용량이 증가하는 하절기인 오는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수압과 수질 개선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해에도 사업비 3억8700만원을 투입해 추자면·우도면·비양도 지역에 노후 상수도관(약 1.8km)을 정비했다.

시 관계자는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유수를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후 상수도관 정비 등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윤형기자 yhle@ihalla.com



“오늘의 시름도 함께 던져봅니다” 맑고 쾌청한 날씨를 보인 15일 예월항 인근 갯바위의 낚시객들이 연신 낚시대를 드리우고 있다. 이상국기자

위기의 카지노업 코로나19 돌파구 없나

도내 8곳 중 총 5곳 휴업... 외국인 발길 끊겨 매출 급감 카지노 업계 비대면 방식 도입 제안했지만... 道 “글쎄”

제주지역 카지노업계가 코로나19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와 도내 카지노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영악화로 현재 제주도내 카지노 8곳 중 5곳이 휴업했다. 또 제주드림타워로 면적을 확장한 LT카지노도 개점 준비를 위해 일시 문을 닫은 상황이다. 제주도내에서는 제주신화월드 랜딩카지노와 제주 파라다이스 카지노가 운영하고 있지만, 이

마저도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매출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카지노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줄어들면서 매출이 급감하는 등 카지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카지노 운영 수익으로 직원들 월급주는 것도 빠듯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주도의 확인 결과 도내 8개 카

지노의 지난해 잠정 매출액은 약 690억원 규모로 전년인 2019년(매출액 1903억원) 대비 6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하늘길이 막히면서 제주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장객 수가 2020년 16만6873명으로 2019년 36만9409명 대비 55% 감소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카지노업계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카지노 비대면 게임 방식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관광업계 현안 간담회에서 최성욱 한국카지

노업관광협회 회장은 “글로벌 카지노 업계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대면 카지노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이 외국인 카지노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비대면 방식 도입을 건의했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는 비대면 게임 방식은 참가자를 직접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 등 여러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카지노의 비대면 방식 도입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비대면 방식 도입은 정부와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으로 현재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도내 카지노 업계의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카지노 게임 비대면 방식은 검토될 사항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국제컨벤션센터 개인 보유 주식 추가 매입

30일까지 8만7000주 규모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식 중 최초 출자한 개인 보유 주식을 오는 30일까지 추가 매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제주도는 1997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생 당시 출자한 개인 주주들 중 센터의 적자 운영으로 배당받지 못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의 보유 주식을 순차적으로 매입하고 있다.

도는 올해 70대 이상 보유 주식 15만4000주를 1차로 매입했다. 도는 오는 30일까지 65세 이상으로 연령을 확대해 8만7000주를 추가 매입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80대 이상이 보유한 주식 10만2000주를 매입했다. 제주도는 2022년까지 총 68억원을 투입해 3841명이 보유한 개인주 136만2000주를 매입할 예정이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제주시, 지구 사랑 공모전 개최 초등학생 대상 포스터·글짓기

오는 22일 제51회 지구의날을 앞두고 제주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구 사랑 공모전이 열린다.

제주시가 주최하는 이번 공모전은 15일부터 이달 30일까지 포스터와 글짓기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시 관내 재학중인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 주제는 '지구 회복: 바로 나부터!'로 지구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내용을 제출하면 된다. 포스터는 4절지, 글짓기는 200자 원고지 7매 내외 분량으로 출품작은 심사를 거쳐 총 20점을 선정해 5월 중으로 수상작을 발표할 계획이다. 문의=제주시 환경관리과(728-2193). 이윤형기자

가설건축물 연장 미이행 점검

제주시가 가설건축물 축소신고 후 존치 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15일 시에 따르면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대상은 총 398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283건은 말소 216건·연장신고 21건·철거완료 46건 등 처리가 완료됐다. 나머지 115건은 연장신고되지 않은 가설건축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연장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에 대해, 현장점검을 통해 철거 완료된 가설건축물은 직권 취소하고, 가설건축물은 존재하나 연장신고를 미이행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장기간 방치로 인해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가설건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형기자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마늘·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연작장해 토양 속독 살균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Powerful

용량: 20kg

필빅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과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냉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킨다.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NAVER D.M **코코리**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 TEL: 745-8900, HP: 010-9258-7508

SM그룹 에스엠신용정보

생각만해도 머리 아픈 돈, 돈! 최선으로 받아줍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에스엠신용정보**를 선택하십시오!
만족으로 보답해 드립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부동산대금, 투자금,
빌려준돈(판결문, 공증), 약정금, 구상금, 계돈

고객님 언제든지 전화, 방문 상담을 무료로 해드리며 착수금(선불경비)일체 받지 않습니다

에스엠신용정보 제주지사 ☎ 064)756-9041

직원모집 | 추심관리사, 영업전문직을 모집합니다 064)725-9001